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10.18.(제3776)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가난한 새의 기도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등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날며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소박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 이해인 -



기 독 교 아현중앙교회
대한감리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 임 목 사 권 오 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21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례 송...524장(1,3절)...다 같 이 ※영 광 송.....4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께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 99:2)

※경 배 찬 송.....29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 살아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
는 기쁨을 누리며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40번(시편 96편)...다 같 이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도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같이)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
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 도.....안홍순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분반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례 자

구 약 | 시 편 73:25-26

신 약 | 빌 립 보 서 3:3-9

찬 양... 내 목자는 ...찬 양 대
사랑의 왕

증 언.....권오진 목사

『 세상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다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월례회

다음 주: 목장별 목장모임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2	영 아 부	10
주 일 2 부 예 배	275	유 치 부	15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7	유 초 등 부	25
목 장 모 임	221	중 · 고 등 부	18
수 요 성 서 연 구	57	청 년 부	17
수요실시간방송예배	9	예 수 소 망 반	28
금 요 성 령 집 회	휴회	생 명 의 삶	휴강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휴회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합 계	641	합 계	113

현 금			
주 일 현 금	2,130,000	감 사 현 금	7,760,000
교회학교현금	185,900	생 일 현 금	150,000
월 정 현 금	2,940,000	선 교 현 금	40,000
십 일 조	2,050,000		
합계 15,255,9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민수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히브리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10월 21일(수)10:30,송호준 전도사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6과 (계속)

본문:요한복음 15장 7절 외

- 금 주 기 도 : 소미숙 권사
- 다음주기도 : 8,9지회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10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김유임 윤희열	이호순 정미애 한애선 송대현 오수윤 전동순
안내위원	문정이	
강단헌화	박기순 (배하누 이효은)	
수납위원	김동수 김명훈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이명근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눈물의 자리에서 핀 믿음”

구약 열왕기상 17:17-24

신약 베드로전서 1:6-7

설교 : 손민승 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머물던 집에 슬픔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던 입술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얻던 집에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가운데 절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하다’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꽃 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고난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17절)

가뭄 중에도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행복한 날들을 경험하는 중에 여인의 집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인의 아들은 병세가 점

점 심해지더니 끝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은 과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내 삶에 갑작스런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가장 먼저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감사를 잃어버린다. 고난과 눈물은 감사를 덮어 버립니다.

여인은 항변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항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고, 내가 가진 전부(가루와 기름)를 드렸는데 왜 나의 전부(아들)를 빼앗아 가십니까?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따지며 “왜”가 터져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데, 갑자기 암 말기라는 임종 선고를 받아야 하는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사업하려 애쓰는데, 왜 나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죄를 인식합니다. 여인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고난과 슬픔의 원인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키는 통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4장 7절은 욥의 친구들이 고난 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또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죄를 인식하는 것은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김세윤 박사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고난이 모두 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함도 알려줍니다.

내 삶에 갑작스런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9절)

그 고난과 눈물을 하나님께 넘겨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품에 안긴 아들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흔드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20-21절)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엘리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22-23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병들어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에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열왕기하 20장 5절)

엘리야는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말처럼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24절)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살아난 아들을 보고 여인이 내뱉은 첫 말은 ‘감사합니다’ 또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말합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고백을 이제야 합니다.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제야 믿음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믿음을 피어나게 하십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기적의 떡을 먹는 삶에서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눈물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바로 전에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집에 있는 마지막 남은 재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막으시고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 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본문은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과부가 살았던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살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 이방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께까지 전해질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눈물과 고난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며 믿음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라도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꽃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헌 금

십 일 조 헌 금 (김준수 최희성) (이동일 최은주) 이연순 최경애 황공자 무명

월 정 헌 금 (김성수 주현순) (권영만 최명희) 김선경 (김성욱 이현희) 김연혜 (김진태 이마옥) (김태환 임선희) 박천숙 (송성범 최명애)
임연희 (장성욱 김아영) (장재혁 이은영) 홍원숙

감 사 헌 금

(구본수 송명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석 나영임) :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준수 최희성) :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인경구 : 치료의 과정에 동행해주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강정희A :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셔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믿음의 삶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카시아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정식 : 생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심재현 유인영) : 유나의 두들을 맞이하며 감사드립니다.

우철주 :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볼 수 있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서영 제인 신우) :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순희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이용환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임 : 생일 감사합니다.

이진숙 :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기억, 하나님 나라 인자 되게 하옵소서!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복수 : 주님. 아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 명 :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 일 헌 금 권혁성 서정식 이정임

선 교 헌 금 오혜리 이한나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교회학교 야외예배** : 오늘 유치부는 주연팜(남양주), 유초등부는 홈플러스 영등포점(롤러 스케이트장)에서 있습니다.
- **제46회 세대문지방 평신도성경학교** : 11월 2일(월) ~ 5일(목), 창천교회에서 있으며, 3층 안내석에서 수료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사 : 신진섭목사(현촌교회 담임), 오전반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 저녁반 월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특강 :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모임안내

- **제7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 소예배당(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 **여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각 지회별로 있습니다.
제1여선교회-402호(4층) / 제2여선교회-403호(4층)
제3여선교회-회의실1(로비층) / 제4여선교회-302호(3층)
제5여선교회-새가족실(3층) / 제6여선교회-301호(3층)
제7여선교회-회의실3(로비층) / 제8여선교회-도서실(로비층)
제9여선교회-카페J(로비층)
- **제6남선교회 월례회** : 오늘 점심에 있습니다.
- **지역나눔 반찬봉사** : 24일(토) 오전 9시에 만나홀에서 있으며, 배달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 교우동정

- **입원** : 이해순 권사께서 동신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감사** : 오늘 점심식사를 후원해 주시는 권오진 목사 조고는 사모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굴레방 나눔 한마당 축제를 후원해 주신 총여선교회, 7여선교회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예수소망반을 후원해 주신 총여선교회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지역나눔 반찬봉사를 후원해 주신 7여선교회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전도대를 후원해 주신 서태희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10월 중 행사

- **목장모임** : 25일(주일)
- **목회세미나** : 27일(화), 방주교회

■ 금요성령집회(10월 23일)

찬	양	느헤미야 찬양단
설	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15-21) 권 오 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10월 25일)

대 표 기 도	이 평 식 장로
성 경 봉 독	허 상 원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2초원
- 다음 주 : 1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English Ministry Pastor Abraham Napitupulu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